

#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

李 在 勳

(성균관대 연구교수)

1. 머 리 말
2. 러시아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
3.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전쟁 관련 자료
4. 맺 음 말

## 1. 머 리 말

1945년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을 기원으로 한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다 준 민족사적 비극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세계냉전체제를 고착시키는 결정적 동기를 제공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한국전쟁의 결과는 세계냉전체제가 해체된 198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의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남북간 긴장과 대결의 원천으로 남아 있으며, 한반도의 이러한 상황은 냉전이 사라진 국제환경에 재차 분쟁적 요소를 제공하는 악순환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전쟁발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쟁의 직·간접 당사국<sup>1)</sup> 중 하나였으며 전쟁 이후에도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러시아<sup>2)</sup> 역시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 학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많은 연구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오랜 기간 한국전쟁을 자신과는 무관한 지역적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싶어 하던 러시아 당국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러시아 학계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관한 자료와 연구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과거 그들의 연구는 세계냉전체제와 북한과의 관계, 이데올로기적 편향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왜곡과 과장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경원하고 무시하

- 1) 많은 연구성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련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이후 전쟁 기간에도 '우호국가'인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전쟁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막대한 전쟁 자원을 제공하였으며, 군사고문단 파견을 비롯하여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한국전쟁에 자국 군대를 직접 투입까지 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록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전쟁 이전과 전쟁 시기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수지원에 대해서는 Alexandre Y. Mansurov, *Communist War Coalitions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Торкунов А. В., *Заградочная вой на: Корей 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 М., 2000[토르쿠노프 A. V., 『이상한 전쟁: 한국전쟁 1950-1953』(Moscow, 2000)] 등을, 그리고 소련군사고문단의 지원에 대해서는 Киришин Ю. X., *Корей ская вой на: уроки и выводы, Материалы Россий ско-корей 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 Институ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ин Обороны, 2000[키르쉬인 Yu. Kh., '한국전쟁: 그 교훈과 결과', 『한리학술회의 자료』, Moscow, 러시아국방성 군역사연구소, 2000]을 통해 그 개략적인 규모를 살펴볼 수 있으며, 소련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1990년 경희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전쟁 시기 소련군 조종사였던 스모르츠코프(A. П. Сморгчов) 대령이 참전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국내에 최초로 알려지게 된 이래,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관련 자료들이 러시아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로부터 대량으로 공개됨으로써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 2) 이 글에서는 편의상 1991년 소련 해체 이전 시기의 국가 명칭도 러시아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는 큰 이유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 그들의 연구에는 새로운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과의 관계나 이데올로기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자료와 관점을 가지고 ‘사실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보이기 시작한 러시아 국내 환경 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대표되는 소련의 노선 변화로 인해 연구자들은 더 이상 북한의 한국전쟁 시각을 반복하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성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는 비교적 객관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었다.

이 시기 한국전쟁에 대한 다방면적 사실탐구가 가능하도록 기여를 한 것은 러시아 문서보관소들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였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들에서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에 관련된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자료들은 크게 세 개의 경로를 통해 국내에 도입되었다. 일부는 당시 러시아에 유학한 유학생들에 의해 수집되어 국내의 여러 기관에 전파되었으며,<sup>3)</sup> 또 다른 일부는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인도한 것이었다.<sup>4)</sup> 마지막으로 일부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후원하는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수집된 자료의 대다수는 영문으로 번역·공개되어 국내에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개된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자료들은 수정주의적 연구 경향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던 기존의 전통주의 학설에 다시 힘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

3) 당시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한국현대사 관련 러시아 자료를 확보한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의 정부기관과 중앙일보 등의 민간기관이었다.

4) 이는 1992년 11월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자료를 한국 측에 인도한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다.

기로 작용하였으며, 러시아의 연구자들 뿐 아니라 한국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에게도 한국전쟁의 진상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러시아 자료를 통해 가설로만 인식되고 있던 한국전쟁의 다양한 양상들이 이제는 ‘사실’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러시아 학계를 포함하여 많은 다른 나라 연구자들의 한국전쟁 연구에 큰 기여를 한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자료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러시아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

러시아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는 1980년대 중반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에 관한 학계의 연구 관점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는지 아닌지의 구분 시점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는 데는 페레스트로이카를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소비에트 시기 한국전쟁 연구동향

#### 1) 한국전쟁 시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벗어나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모든 연구에서는 한결같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전쟁에 대한 당시 러시아 학계의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한의 북한에 대한 불시적인 침공에 의해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UN이라는 미국의 거수기를 이용하여 '주악한' 전쟁에 개입하였다. 북한은 원조를 위해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정의를 수호하는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였다. 소련과 민주국가들, 그리고 모든 진보적 인류가 북한을 지원하였다.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의 연구성과들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편향적 관점은 그들의 연구성과가 외부로부터 무시당하고 경원당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서방국가의 연구자들은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를 단순히 선전이나 선동의 일환으로만 치부한 채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성과가 전적으로 허구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비록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러시아 정부가 규정한 틀을 벗어나는 영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과의 관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도 점차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러시아 학계의 전쟁 관련 연구물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신시대(Новое Время)』 등의 대중저널에 발표된 평론 성격의 소논문들이 있다. 이 글들은 주로 북한에 주재하면서 전선과 후방의 상황, 북한의 군사와 주민들의 생업 활동에 대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러시아 기자들에 의해 집필되었다. 하지만 이 글들의 경우 대중성을 지향했기 때문에 왜곡과 허구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소련 과학아카데미 소식(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역사문제(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모스크바대학 교지(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소비에트 국가와 법(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등의 전문학술저널에 실린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의 논문들이 있다. 하지만 이 글들 역시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군사작전에서 보여진 북한 측의 영웅적 헌신성 등을 주로 다룸으로써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을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룬 단행본과 소책자들이 있다.<sup>5)</sup> 이들 책자는 주로 전쟁의 주동자로 규정된 미국과 남한에 대한 비판, 북한군의 군사작전 전개과정, 전선과 후방에서 활약한 북한사람들의 영웅주의와 헌신성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책자들 중에서 크랍초프(И. В. Кравцов), 페로프(Л. Перов), 피굴렙스카야(Е. А. Пигулевская) 등의 글에는 전쟁 기간 중 양 진영의 군사행동에 대한 개요를 알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자들은 한국전쟁 시기 군사행동의 전개과정을 우리 측이 아닌 상대측의 시각과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2년 발간된 톨체노프(М. Толченов)의 저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민중의 무장투쟁(군사행동 개관. 1950년 6월~1952년 6월)』<sup>6)</sup>에는 전쟁의 발발과 각 작전단계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설명,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수행한 주요 전투작전 및 전쟁의 결과 등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당시 북한에 주재했던 러시아 기자들의 글도 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의 상황을 보여주는 유용한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관찰이나 북한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많은 글을 남겼다. 그러한 글로는 보르젠코(С.

5) 당시 책자의 집필자로는 미하일 박(М. Пак), 피굴렙스카야(Е.А. Пигулевская) 등의 학자, 크라이노프(Л. Крайнов), 톨체노프(М. Толченов) 등의 군사평론가, 보르젠코(С. Борзенко), 코진(А. Кожин), 트카첸코(А. Ткаченко) 등의 기자가 있다.

6) Толченов М., Вооруженная борьб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 з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Очер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 6. 1950-6. 1952). М., 1952.

Борзенко)의 『전화 속의 조선(르포)』<sup>7)</sup>과 『조선의 용맹(르포)』<sup>8)</sup> 바실리에프(A. Васильев), 볼크(И. Волк), 코르닐로프(В. Корнилов) 등이 공동저술한 『투쟁 속의 조선(기자들의 기사)』<sup>9)</sup> 코진(A. Кожин)의 『전쟁 시기의 조선』<sup>10)</sup> 트카첸코(A. Ткаченко)의 『영웅적 조선(르포 및 통신문)』<sup>11)</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글들에는 전선과 후방의 상황, 북한의 군사와 주민들의 생업 활동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전쟁 시기 발간된 러시아 학계의 연구성과중 대표적인 것으로 크랍초프의 『1945~1951년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sup>12)</sup>을 들 수 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집필된 이 책자는 소련, 북한, 미국 등의 언론자료를 활용하여 1945년 한국의 해방부터 1950년까지 남한과 북한의 발전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에 대한 이 책의 기본 시각 역시 러시아 정부의 공식노선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저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조선 이승만 괴뢰정부가 맥아더 장군의 지시에 따라 북한을 침공하였다”<sup>13)</sup>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1951년 봄까지 다양한 전쟁 단계에서의 전투과정과 함께 외국의 전쟁 개입을 방지하고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의 투쟁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처음으로 완전하고 분명하게 소개한 크랍초프의 저서는 러시아에서 이후 수십 년간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방향을 규정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후에 생산된 러시아의 모든 연구성과는 이 책의 공식개념을 엄격히 추종하였으며, 책 속에 담겨 있는

7) Борзенко С., Корея в огне. Очерки, М., 1951.  
 8) Борзенко С., Мужество Кореи. Очерки, М., 1953.  
 9) Васильев А., Волк И., Корнилов В., Корея в борьбе. Заметки Журналистов, М., 1951.  
 10) Кожин А., Корея в дни вой ны, М., 1952.  
 11) Ткаченко А., Героическая Корея—Очерки и корреспонденция, М., 1953.  
 12) Кравцов И. В., Агресс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в Кореи(1945-1951 гг.), М., 1951.  
 13) 위의 책, 302쪽.

자료들도 아무런 재검토 없이 무비판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용되었다. 참고로 크랍초프의 관점을 추종한 연구성과로는 페로프의 『미국의 조선침략』<sup>14)</sup>을 비롯하여, 게오르기 김(Г. Ф. Ки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록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해방전쟁-조선현대사 개관(1945~1953)」,<sup>15)</sup> 샤브쉬나(Ф. И. Шабшина)의 『조선근세사 개요(1945~1953)』에 수록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sup>16)</sup> 발렌틴 박(В. К. Пак)의 『조선사(고대에서 현대까지)』에 수록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sup>17)</sup> 1970년대에 발간된 『소비에트 군사백과사전』<sup>18)</sup> 등을 들 수 있다.

전쟁 시기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성과 중에는 전쟁 초기 북한이 서울에서 노획한 남한과 미국의 문서 내용을 요약한 저술과 평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저술로는 미하일 박(М. Н. Пак)의 『미국의 조선침략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미국 전쟁 도발자들을 폭로한 문서들)』<sup>19)</sup>과 「미국의 조선침략 준비를 폭로하는 문서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sup>20)</sup> 등을 들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서는 미국의 세균무기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52년 2월 말 북한 외교부장 박헌영과 중국 총리 주은래는 미국이 한국에서 생물학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중국군에 전쟁포로로 붙잡힌 미국인 조종사들이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자백함에

14) Перов Л., Американская агрессия в Корее. М., 1951.

15) Ким Г. Ф., *Велика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вой н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М., 1954.

16) Шабшина Ф. И., *Отечественна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вой н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черк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1945~1953). М., 1958.

17) Пак В. К., *Отечественна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вой н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стория корей(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2, М., 1974.

18)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72-1976.

19) Пак М. Н. Как готовилась американская агрессия в Корее(Документы, разоблачающ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поджигателей вой ны). М., 1951.

20)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51, No.9. Сер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Выпуск 4;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истории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 1952.

따라 북한과 중국의 비난은 한층 더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발간되는 각종 정기간행물에서는 미국이 북한군, 중국군과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세균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많은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수집된 증거들이 인용되었으며, 비인간적 행위의 주동자와 집행자들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게재되었다. 이에 관하여 많은 연구성과가 등장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라긴스키(M. Рагинский), 로젠블리트(C. Розенблит), 스미르노프(Л. Смирнов) 등이 공동 저술한 『세균전-제국주의 침략의 범죄적 무기』<sup>21)</sup> 로마슈킨(П. Ромашкин)의 『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가공할 범죄』<sup>22)</sup>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의 학술서적들에서 세균무기 사용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시 미국에 대한 비난은 선전적 목적에서 추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저명한 외교관이자 중국학 학자인 카피차(M. С. Капица)는 1996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서로 다른 평행선들에서(외교관 수기)』<sup>23)</sup>에서 미국의 세균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 “허구”<sup>24)</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 2) 한국전쟁 이후

전쟁이 끝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한국전쟁 관련 연구성과들에서는 전쟁에서 소련이 수행한 역할의 상당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러시아 지도부가 자국의 한국전쟁 개입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연구성과들에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적극적인 정신적 지원, 종전과 한국 문제

21) Рагинский М., Розенблит С., Смирнов Л.,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ая вой на-преступное оружие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агрессии. М., 1950.

22) Ромашкин П., Чудовищ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агрессоров в Корее. М., 1953.

23) Капица М. С., На разных параллелях. Записки дипломата. М., 1996.

24) 위의 책, 223쪽.

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 사회의 노력과 투쟁,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경제와 문화의 복구 지원 등이 주요 주제로 언급되었을 뿐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수행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원조를 언급하는 것은 철저한 금기사항이었다. 앞서 소개한 게오르기 김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해방전쟁」과 샤프쉬나의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이 이러한 한계를 지닌 대표적인 연구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기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다. 러시아가 한국전쟁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성과가 1969년에 생산되었던 것이다. 카피짜가 집필한 『중화인민공화국 20주년-2개의 정책』<sup>25)</sup>이 그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과 중국의용군에게 무기, 탄약, 운송수단, 연료, 식량, 의약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한국에는 러시아의 군사고문단과 전문가들이 배치되었다는 사실, 중국의 동북지방을 미국의 항공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러시아 조종사들이 참전했던 사실, 그리고 전황이 악화될 경우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러시아가 한국에 5개 기갑사단을 파견할 준비를 했었다는 사실 등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한국전쟁과 러시아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제까지의 러시아 당국의 공식 입장을 일순간에 뒤집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소원화, 북한의 주체사상 발현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에서 새로운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당시 북한은 주체사상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한국전쟁 당시와 이후 북한에 제공된 러시아의 대규모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원조에 대해 입을 다문 채 모든 성과를 배타적으로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의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 움직임의 하나로 북러관계의 역사적 사실들을

25) Капица М. С., КНР: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две политики, М., 1969. 참고로 이 책은 이후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1979년 КНР: три десятилетия—три политики [『중화인민공화국 30년-3개의 정책』]으로 개정 출간되었다.

복구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시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련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소에서는 북러관계의 연구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의 각 방면에 관계를 갖고 있던 군인, 전문가, 사회활동가, 학자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대북한 원조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한 회상집과 논문집을 출간하도록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가 『조선 땅에 평화를 위하여』<sup>26)</sup>였다. 이 논문집의 필자는 현재 동방학연구소 북한·몽골과장인 바닌(Ю. Вагин), 주북한 소련민정국장이었던 레베제프(Н. Г. Лебедев), 군역사가 플로트니코프(К. Плотников), 한국전쟁시 소련상무관이었던 사쿰(Н. И. Сакун), 전쟁시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근무한 페투호프(В. И. Петухов), 소련외무성 관리 모로조프(Б. М. Морозов) 등 대부분이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까지 북한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논문집에서 가장 흥미를 불러 일으켰던 논문은 제64전투비행군단을 지휘하여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로보프(Г. А. Лобов)의 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전투에서 소련조종사들」<sup>27)</sup>이었다. 이 논문에서 로보프는 한국전쟁 시기 평양-원산 라인 이북지역에 대한 공중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참전 러시아 항공군단의 전투작전, 자국기와 적기의 전술적, 기술적 수준 및 전투술 등을 상세히 분석·기술하였다.<sup>28)</sup>

26) За мир на земли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М., 1985.

27) Лобов Г. А., *Советские летчики в боях н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НДР*(미발간논문)

28) 하지만 로보프의 논문은 소련 공군의 참전 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우려한 소련 고위군사 기구의 반발로 인해 집필된 후 5년이 지난 1991년에야 『Авиация и космонавтика[항공과 우주]』라는 저널에 발표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Лобов Г. А., В неб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виация и космонавтика, 1990, No.10~12; 1991. No.1~5 참조.

이후 소련 공군의 참전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연이어 수많은 관련 글들이 생산되었다. 당시 생산된 성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바쿠모프의 논문, 「조선 하늘에서의 소련 조종사들」[Абакумов Б. С., Советские летчики в небе Кореи.]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o.1 (1993), 「소련의 조선전쟁 참전(새로운 문서)」[Абакумов Б. С., Участие СССР в Корейской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앞서 정부의 공식입장에 배치되는 연구성과를 소개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정부나 학계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후에도 계속 과거의 공식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50년대 이래 소련 역사학계에 유지되어 왔던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입장에 바탕을 둔 마지막 저술은 1988년에 발간된 『소련과 조선』<sup>29)</sup>이었다. 하지만 이 책자 중에서 바닌과 플로트니코프가 작성한 「제국주의 침략(1950~1953)을 격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국제적 원조」 부분은 전쟁의 여러 단계에서의 전투작전과정을 다룬 한편,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사, 경제, 문화 원조에 관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이고 사실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2) 소련 해체 이후 한국전쟁 관련 연구동향

1980년대 말 이후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는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대표되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정책과 연이은 소련의 해체, 소련공산당의 몰락,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 등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더불어 소련이 해체된 이후 북한과의 동맹적 관계가 적의적, 혹은 냉담한 관계로 변모한 반면, 남한과는 다방면에 걸친 관계증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러시아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러시아 학계에는 정부의 공식 노선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의 연구경향을 탈피

вой не(новые документы)].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o.11, 12(1994)), 나보카의 저서, 『중국과 조선의 하늘을 수호하기 위한 소련 조종사들(1950~1951년)』[Набока В. Н., Советские летчики на защите неба Китая и Кореи(1950-1951 гг.). М., 1999] 등을 들 수 있다.  
29) СССР и Корея, М., 1988.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엄격한 검열이 약화되었고, 다원주의적 견해가 확산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였다. 과거 철저히 배일에 쌓여있던 문서보관소들의 중요한 자료들도 개방과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학자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사료와 학술문헌에 대한 접근도 보다 손쉽고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러시아 학계의 환경변화는 한국전쟁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상부에서 규정했던 엄격한 틀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전쟁을 보는 관점에서 다원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관점의 다원화는 한국전쟁의 기원을 규명하는 연구들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한국전쟁의 기원과 관련하여 3개의 관점이 혼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개전의 책임을 북한에 두는 관점이다. 당시 북한 측의 행동을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한 침략으로 간주하는 이 관점의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므레친(Л. Млечин)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의 참전자 일부와 군역사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므레친은 1990년에 자신의 관점을 주장한 글인 「한국-비밀스러운 전쟁」<sup>30)</sup>을 발표함으로써 북한 책임론의 선두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북한의 남한 공격은 세계여론에 의해 노골적인 침략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더욱이 이것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의 개시로서, 소련과 중국의 대륙 장악 행위로서 평가되었다”<sup>31)</sup>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점이 수용된 것으로는 한국전쟁시 북한인민군 부총참모장을 지냈으며 휴전회담에서 북한대표단을 이끈 이상조의 인터뷰 기사<sup>32)</sup>와 1950~53년 국방성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에 직접 관계하였던 투마노프(Г. Туманов)의 글, 「김일성의 날카로운 공격」,<sup>33)</sup> 그리고 군역사가인 플로

30) Млечин Л., *Корея. Тай ная вой на*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No.10(1990).

31) 위의 글, 14쪽.

32)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No.27(1990).

33) Туманов Г., *Штыковая атака Ким Ир Сена* Новое время, No.26(1993), 32-34쪽.

트니코프의 인터뷰기사<sup>34)</sup>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에 대한 소비에트 시기의 전통적인 개념을 고수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연구성과로는 러시아 국방성 군역사연구소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집필한 『한국: 분단·전쟁·통일』<sup>35)</sup>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한국전쟁 관련 부분에서는 “1950년 6월 25일 오전 38도선에서 대규모 교전이 전개되었다. 주요 전선 구역에서 남한군이 시작한 공격을 격퇴한 후 조선인민군은 서울 작전 방향으로 강력한 타격을 가했으며, 적의 방어선을 뚫고 남쪽으로 돌진하였다”<sup>36)</sup>고 서술함으로써 남한에 의한 선제공격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 중 일부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의 여러 가설을 검토하는 중에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연구자들은 당장 이 가설들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 6월 25일은 조건부로만 한국전쟁 개시일로 간주할 수 있다. 전쟁은 이전에 무르익었고 단지 첫 총성만이 필요했던 것이다”<sup>37)</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전통적 개념을 고수하는 학자들 중 일부에서도 과거 소비에트 시기 주장되었던 남한에 의한 선제공격론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한국이 1950년 6월 25일을 기해 평화에서 전쟁으로 전환되었다기 보다는 작은 전쟁에서 큰 전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그들은 한국 국민으로부터 민족통일을 앓아가고, 한쪽이 다른 쪽과 적대하도록 만든 국토분단을 전쟁의 주범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 진전상 한국에서는 격렬한 내전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었으므로 무력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누가 전쟁을 시작했고, 누가 1950년 6월 25일에 군사분계선을 넘었는가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세

34)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No.30(1992). 참고로 플로트니코프는 1988년 공동저술한 『소련과 조선』에서는 남한의 선제공격론을 주장하였다. СССР и Корея. М., 1988. 205쪽 참조.

35) Корея: расчленение, вой на, объединение. М., 1995.

36) 위의 책, 177쪽.

37) 위의 책, 187쪽.

번째로 소개할 관점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쟁을 한국의 분단 및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양극간 대립의 소산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6월 25일 누가 38도선에서 도발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전쟁은 분단과 양극간 대립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학자인 미하일 박(М. Н. Пак), 보론쑤프(В. Б. Воронцов), 토르쿠노프(А. В. Торкунов), 우핌쑤프(Е. П. Уфимцев) 등이 이 관점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보론쑤프는 자신의 연구서인 『러시아와 한국(1945~1992)』<sup>38)</sup>에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한국전쟁에서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가 아니다. 1950년 한국민의 비극의 출발을 규정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sup>39)</sup>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르쿠노프와 우핌쑤프 역시 공동저서인 『한국문제: 새로운 관점』<sup>40)</sup>에서 위와 동일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화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문서보관소 자료의 공개일 것이다.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의 공개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다수의 의미 있는 연구성과가 생산되었다. 앞에 소개한 『한국: 분단·전쟁·통일』과 『한국문제: 새로운 관점』을 시작으로, 바자노바(Н. И. Бажанова)의 논문 「20세기 최고의 수수께끼 전쟁」,<sup>41)</sup> 볼로호바(А. Волохова)의 논문 「한국에서의 휴전협정(1951~1955)」,<sup>42)</sup> 토르쿠노프의 저서 『이상한 전쟁: 한국분쟁 1950~1953』<sup>43)</sup> 등이 문서보관소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들

38) Воронцов В. Б., Россия и Корея (1945-1992). М., 1993.

39) 위의 책, 56쪽.

40) Торкунов А. В., Уфимцев Е. П., Корейская проблема: Новый взгляд. М., 1995.

41) Бажанова Н. И., Самая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XX столетия. Новое время, No.6(1996).

42) Волохова А., Переговоры о перемирии в Корее(1951-1953 гг.).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6(2000).

43) Торкунов А. 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 М., 2000.

이다. 이 연구성과들은 문서보관소 자료를 바탕으로 1945년 이후 소련의 대한정책, 전쟁 이전과 전쟁과정에서 소련지도부가 행한 구체적 조치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학계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이 보여지기 시작하였다. 과거 소련에서는 권력 상층부에 있는 소수에게만 열람이 공개되는 비공개 간행물이 다수 있었다. 이것들 중에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다. 이러한 간행물들이 이 시기에 들어 하나 둘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공개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에서의 전쟁 1950~1953』<sup>44)</sup>이다. 이 책자는 1950년대 로토츠키(С. С. Лотоцкий)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으로, 이후 오랜 기간 소련의 고위급 장교들에게만 공개되었다. 이 책자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1950년대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미 북한을 개전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전쟁 관련 자료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들에서 잠자고 있던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이 서서히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뿐 아니라, 1945년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이후의 일정한 시기까지를 포괄하는 많은 양의 러시아 자료가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일부 유학생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수집된 한국전쟁 관련 자료 중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2001년 6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이하, 『전쟁 보고서』)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관련 자료’(이하,

44) Вой на в Коре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0.

‘제64군단 자료’)가 있다.<sup>45)</sup>

『전쟁보고서』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주재 소련 군사고문단장 겸 북한대사였던 라주바예프가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을 비롯한 주요 전투상황, 군사력 현황 등의 각종 전쟁 관련 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보고서<sup>46)</sup>를 번역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우리가 아닌 상대방, 특히 소련의 시각에서 전쟁 당시 양측의 군사력 비교, 전쟁의 진전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주바예프의 보고서는 원래 러시아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 러시아에 유학하던 한국 유학생이 수집하여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등이다.

‘64군단 자료’ 역시 러시아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1990년대에 발굴·수집하여 국내에 들여온 것이다.<sup>47)</sup> 군단 관련 자료의 전부는 아니지만 현재 국내에는 모두 20개의 문서철(Дело)이 수집되어 있다. 그 목록과 수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64전투비행군단사[Исторический формуляр управления 64ИАК]’ 45매  
 ‘북조선 비행장들에 대한 미공군 활동[Дей ствия авиации США по аэродрома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июля 1950-ноября 1951 гг.)]’ 61매  
 ‘조선전구의 교량 및 선착장들에 대한 미공군의 활동[Дей ствия американской авиации по мостам и переправам на корейском ТВД(июля 1950-ноября 1951 гг.)]’ 53매  
 ‘제64군단의 군단급 및 사단급 공중전 기록[Описание корпусных и дивизионных воздушных боев проведенных соединениями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

45) 이외에도 한국전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다수 있지만,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46) ЦАМО, ф. 16, оп. 3139, д. 128.

47) 이 자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в сентябре и октябре месяцах 1951 года] 224매

‘제64군단 전투보고서[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144매

‘1952년 12월 30일-1953년 1월 12일 제64군단이 수행한 야간공중전 기록 [Описание ночных воздушных боев проведенных в период 30. 12. 52 г.-12. 01. 53 года истребителями 64ИАК] 30매

‘1950년 12월 1일-1951년 2월 5일 제62506부대의 공중활동에 관한 보고 [Отчет о боевой работе части полевая почта 62506 за период с 1 декабря 1950 г. по 5 февраля 1951 г.] 65매

‘전투기 엄호하에 활동하는 적의 소규모 폭격기 및 전폭기 집단의 격퇴에 관한 제303전투비행사단의 전투조직에 관한 보고[Доклад о организац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303ИАД по уничтожению мелких групп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и штурмовиков противника, действующих под прикрытием истребительных эскадронов] 48매

‘1951년 6월-1953년 9월 제18항공장비사단의 지원업무 총결보고서[Доклад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обеспече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и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18 АД с июня 1951 г. по сентябрю 1953 года] 347매

‘고사포 및 고사탐조등부대의 전투결과보고[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частей 3А и 3Пр] 718매

‘제64군단 전투명령 및 지시[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50매

‘제324전투비행사단 전투명령 및 지시[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324 истребительной авиационной свирско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дивизии] 33매

‘전투명령 및 지시[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359매

‘군단 예하부대 공중전 기록[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корпуса] 503매

‘제64군단 공중전 기록[Описание воздушных боев 64ИАК] 422매

‘공중전 기록[Описание воздушных боев] 316매

‘군단 예하부대들의 공중전 기록[Описание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корпуса]

417매

‘군단 예하부대 공중전 기록[Описание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корпуса]’

115매

이 자료들을 통해 전쟁에서 북한 측의 전황이 악화되면서 남으로 평양-원산 선<sup>48)</sup>까지의 한반도 지역, 북한과 중국의 국경과 중국 북동부 영토를 방호<sup>49)</sup>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국경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제64전투비행군단의 한국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던 국제정치사적 의미와 함께 이제껏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안들,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사기술적 측면의 많은 부분을 규명할 수 있다. 20개의 문서철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제64전투비행군단사’이다. 이 문서철에는 전쟁 당시 군단 활동의 모든 양상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이전의 약속에 따라 러시아 대통령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던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을 한국 측에 인도하였다. 대부분의 자료는 러시아 대통령문서보관소에, 그리고 일부는 러시아외무성 대외정책문서보관소와 러시아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로, 모두 합해 216건 548쪽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들은 현재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 문서: 기본문헌, 1949~1953』,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 문서: 보충문헌, 1949~1953』 등의 책자로 편집되어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에 보관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임의로 선별하여 제공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50)</sup> 자료의 공개로 인해

48) 북한 지역에서 제64군단 항공기의 전투한계선은 전황에 따라 변동되었다. 일반적으로는 평양-원산 선이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그 이북 지역에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는 1952년 5월 무렵을 들 수 있는데, 당시의 남방 전투한계선은 안주-개천 선이었다. ‘제64군단 전투활동 보고서’, ЦАМО, ф. 64Иак, оп. 172947, д. 180, л. 6 참조.

49) ‘제64군단사’, ЦАМО, ф. 64Иак, оп. 565836, д. 1, л. 13 참조.

50) 제공 자료에는 특히 1950년 6월 전후의 가장 민감했던 시기의 기록들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에 있어 김일성의 개전 의지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관념에 비

한국전쟁 발발의 기원을 비롯해서, 개전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전쟁의 전체상을 비교적 상세히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민간 차원에서 러시아 자료의 수집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신문에서 1995년 5~6월에 30여 차례에 걸쳐 연재한 「6·25 내막 모스크바의 새 증언」 시리즈를 들 수 있다. 당시 신문에서 다른 자료들은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학장인 바자노프(E. Базанов)와 그의 부인인 바자노바(H. Базанова)가 자신들의 저서<sup>51)</sup>에 활용한 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1994년에 한국 정부가 받은 것에는 없는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50년 3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시 스탈린과의 대담내용<sup>52)</sup>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주의적 시각이 더 이상 도전받지 않는 확고한 위치에 서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당시의 회담내용이 담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자료의 출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등이 주도하여 수집한 러시아 자료들도 한국전쟁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학자인 웨더스비(R. Weathersdy) 등은 센터에서 지원한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를 통해 1994년 한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주로 러시아 대통령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던 한국전쟁 관련 자료 406건

해 보다 큰 책임을 북한 측에 전가시키려고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51)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b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and Mrs. Tong-chin Rhee*. 바자노프 부처의 저서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열림, 1998)을 통해 한국에도 이미 소개되어 있다.

52)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모스크바의 새 증언 5)」, 서울신문, 1995.05.24 참조.

1,148쪽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들 중 대부분은 영문으로 번역되었으며,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된 연구성과들과 함께 공개되고 있다.<sup>53)</sup>

센터의 자료 수집으로 한국전쟁에 관련된 당시 러시아 상층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상층부에 비해 전쟁의 보다 미시적인 부분까지 관여했던 러시아 총참모부 등의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의 깊숙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들 자료에 대한 공개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들리는 바로는 중국 사회과학원과 러시아 문서보관소관리청 간에 상당한 교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 당시 소련 군사고문단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전쟁의 미시적인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국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자료들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맺 음 말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벗어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전쟁과 러시아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한국전쟁은 미국과 남한에 의해 자행된 추악한 전쟁이었다는 정부의 관점이 모든 연구에서 한결 같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규정한 금기의 틀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69년에 생산된 연구물에서 금기로 여기고 있던 많은 부

53) 참고로 우드로 윌슨 센터의 홈페이지는 <http://wwics.si.edu>이다.

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북소관계의 소원화가 큰 작용을 하였다.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배려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학계의 연구관점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전까지는 한국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직·간접적 개입의 모든 부분을 애써 외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는 북한에 보다 많은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원조와 지원의 노력을 했다는 수준에서의 연구들이 생산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러시아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경향은 1980년대 말 이후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해체, 소련공산당의 몰락,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 등이 학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러시아 학계에서는 정부의 공식노선만을 일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사실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견해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세 가지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학계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유력하고 권위 있는 단일의 관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하는 듯하다.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는 러시아 소재 문서보관소들의 한국전쟁 관련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문서보관소들에서 잠자고 있던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후 이 자료들은 외국으로도 전파되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한국전쟁 연구자들이 전쟁의 진상에 보다 쉽게, 그리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국전쟁 관련 자료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문서보관소의 금고 속에 쌓인 채 깊은 잠에 빠져있다. 이는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역사적 성격, 러시아 현지의 관료주의적 통제, 문서보관소들의 서비스 정신 부재 등 러시아 측의 여러 가지 사

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필자를 비롯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러시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 비해 손색이 없는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고 본격적으로 공유 및 연구됨으로써 한국전쟁 연구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05. 4. 20,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한국전쟁, 러시아, 연구동향, 문서보관소, 러시아 자료

K C I

<ABSTRACT>

## Trends of the Korean War Study in Russia

Lee, Jae-hoon

During the Korean War, many newspaper articles and papers were published on the War. Many books and booklets were also written. The themes of these publications were criticism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ilitary strategies, and heroism and sacrifice of the North Koreans. Among the publications *1945-1951 US Imperialist Invasions of Chosun* by Krachov stands out and served as a model for the subsequently written books on the Korean War.

These articles and papers on the Korean War did not mention the role of the USSR because the Soviet leadership denied their involvement in the War. The first person to break the silence was Kapicha. In his publication he wrote that the USSR provided weapons, bullets, transportation, fuel, food and medicine to the Chinese army and Soviet military consultants to North Korea.

From the 1960's the Soviet Academy of Science Eastern Studies published memoirs and collections of papers dealing with many aspects of the Soviet assistance to North Korea during the War. The most interesting paper is by Robov, who wrote concerning the Soviet Union pilots.

The last book written in the tradition of the Soviet official interpretation is *The Soviet Union and Chosun*. This book described military operations of the War, the Soviet Union's military, economic and cultural assistance 서 (?) North Korea,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USSR and North Korea,

etc.

Late 1980's and early 1990's saw new trends in Korean War stud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Communist Party were behind this change. It meant fewer ideological limitations and more liberal censorship. Diversity of opinions was permitted. During this time the Soviet Union was cool towards North Korea and even regarded it a foe. Recently more balanced view of two Koreas is being attempted. Formerly closed Russian archives became accessible and helped fuel new trends.

There are several positions discernable in the Korean study. The first position holds that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Many journalists, experts of international affairs, some soldiers and eyewitnesses of the War belong to this group.

The second position is a traditional one. A book *Korea: division, war, and unification* is representative of this position. In this book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blamed for starting the War.

The third position is that the War was outcome of the divided Korea and Cold War system. This group points out that who started the War is not important because both sides were preparing it.

Recently Russian scholars of the Korean War have been focusing on Soviet Union's policies toward Korea and specific actions taken by it before and during the War. Presently accessible archives provide motivation.

Key Words : Korean War, Russia, Trends of study, Archives, Russian materials